

신지애·양희영 '파리행 막차 티켓' 노린다

여자 PGA 챔피언십 20일 개막... '우승 가뭄' 한국선수들 첫 승 도전 고진영·김효주·김세영 등 21명 출전... 이소미·임진희 등 신인에 기대

여자 골프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1000만 달러)이 20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미국 워싱턴주 서매미시의 사할리 컨트리클럽(파71·6831야드)에서 나흘간 이어지는 이 대회엔 한국 선수 21명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2024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 이후 한국 선수들은 앞선 15개 대회에서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긴 '개막 후 우승 가뭄'을 겪고 있다.

2000년엔 박지은이 개막 후 16번째 대회인 6월 캐시아일랜드 그린스닷컴 클래식에서 첫 승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막 후 19번째 대회에서 첫 승이 나왔던 1999년에도 가까워진다.

전인지가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메이저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모로 1승의 의미가 큰 대회다.

여자 PGA 챔피언십에선 1998년과 2006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2013~2015년 박인비, 2018년 박성현, 2020년 김세영, 2022년 전인지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고진영(7위)이 선봉에 선다.

이번 시즌 8개 대회에 출전해 두 차례 톱10에 든 고진영은 슬라이트 LPGA 클래식(공동 12위) 이후 2주 만에 출전한다.

김효주, 김세영, 유해란, 양희영, 안나린, 이미향, 최혜진, 임진희, 지은희, 신지은, 김아림, 이정은, 이소미, 성유진 등도 나서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신지애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에 출전

할 선수가 결정될 세계랭킹에 반영되는 마지막 대회이기도 하다.

이 대회 이후 24일자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에 출전할 선수가 가려진다.

세계랭킹 15위 이내 선수들은 한 나라에서 4명까지 나갈 수 있고, 그 아래 순위부터는 한 나라에 2명씩으로 출전 쿼터가 제한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와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에 각각 4명씩 출전했던 한국은 현재로서는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선수가 고진영과 김효주(12위)뿐이라 올해 파리엔 2명만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지애(24위)와 양희영(25위) 등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실낱같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처지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6승을 쓸어 담은 세계 1위 넬리 코다(미국)는 7년 만의 이 대회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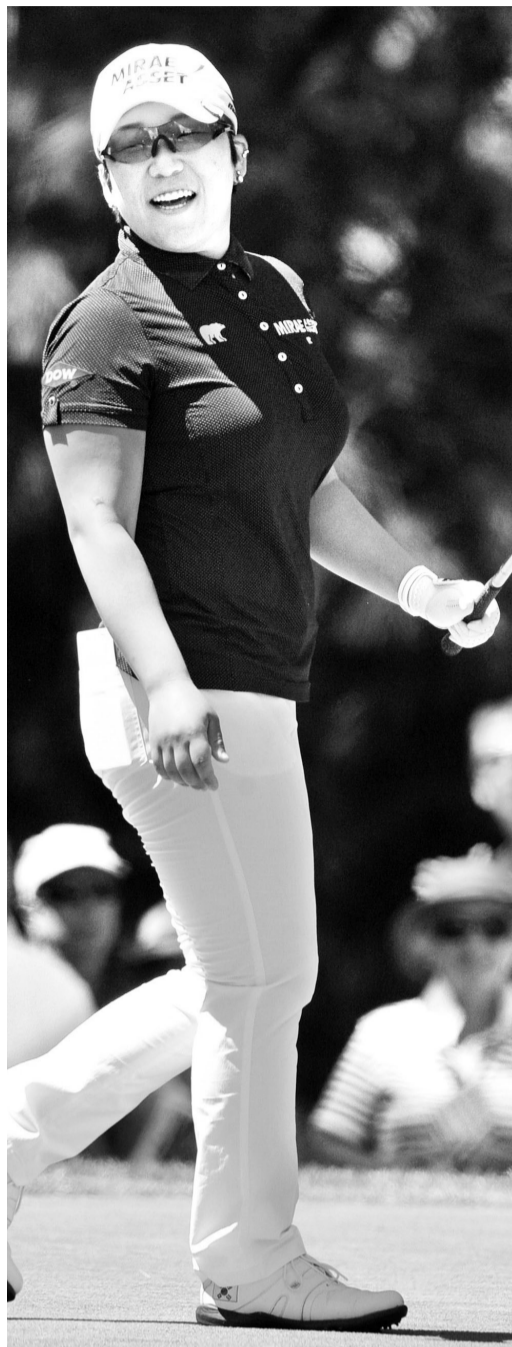
LPGA 투어 통산 14승의 코르다는 메이저대회에선 2017년 이 대회와 올해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보유했다.

허리 부상으로 휴식기를 보내다가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을 통해 복귀해 곧장 우승을 차지한 세계랭킹 2위 릴리아 부(미국)도 우승 후보로 꼽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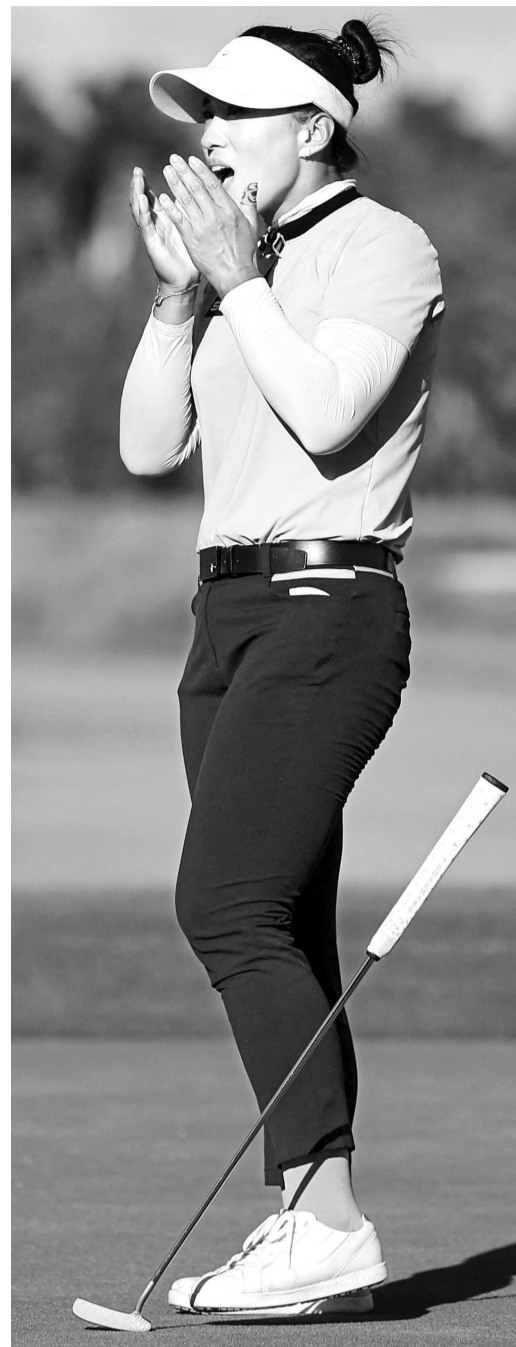
세계 3위 인휘닝(중국)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며, 이달 초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세계랭킹 6위 사소 유카(일본)는 메이저대회 2연승을 노린다.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는 2016년 이 대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연장전에서 따돌리고 우승한 바 있다.

헨더슨과 리디아 고 모두 올해 대회에도 출전한다.



신지애



양희영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폐막



스크린골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광주시 선수단. 김순영(왼쪽부터), 허도경, 허순철.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애인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의 '생활체육 한마당'이 사흘간의 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시내 10개 경기장에서 제3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진행됐다.

광주-전남 선수단도 선의의 경쟁에 동참했다. 광주는 배드민턴, 탁구, 스크린골프, 파크골프 4종목, 26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6개 메달(금2, 은2, 동2)을 획득했다.

스크린골프 종목 비장애인 남·여 통합 개인전, 어울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전남은 배드민턴, 파크골프, 좌식배구, 파라트라이애슬론 4종목에 4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3개(금1, 은1, 동1)의 메달을 따냈다.

김성일은 파라트라이애슬론 개인전 엘리트(시각/수영, 자전거, 달리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체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구성된 생활체육을 즐기는 무대로 지난 2022년 개최 이후 올해로 3회를 맞았다.

광주체중, 제주해녀배 전국핀수영 선수권대회 종합우승

금3·은2·동1개...올 3개 대회 우승 광주체고, 금3·은4·동8 등 15개 획득

광주체중·고 핀수영 선수단이 '제3회 제주해녀배 전국핀수영 선수권대회'에서 활약했다.

최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중 핀수영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종합 우승으로 광주체중은 3월 제32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 5월 제21회 이충무공배에 이어 올시즌 3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중등부 혼합혼성계영 400m에서 서시형·손민서·손호서(이상 3년)·최성연(2년)은 3분36초4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서시형은 남중부 표면 100m에서 44초78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고, 표면 200m에서는 은메달을 땀었다.

최성연도 남중부 잠영 50m에서 19초41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혼성짜핀계영 400m에서는 강윤호(1년)·최성연·손민서·손호서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재이(3년)와 손민서는 각각 여중부 표면 100m와 50m에서 동메달을 땀었다.

광주체중 정지연 감독은 "워낙 다른 팀들이 경쟁해서 이번에는 종합우승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해줘서 얻은 결과인 것 같다"고 전했다.

광주체고 핀수영부는 이번 대회에서 총 15개의



광주체고 핀수영 선수단이 제3회 제주해녀배 전국핀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린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메달(금3·은4·동8)을 획득했다.

홍수진(3년)은 여고부 표면 200m에서 1분33초98를 기록하며 2위 임지원(서울체고·1분36초02)과의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표면 400m에서도 3분23초45로 우승을 차지한 홍수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짜핀 50m에 출전한 윤만나는 24초0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고는 단체전 여고부 계영 4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육철수 광주체고 교장은 "훈련에 전념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교 명예를 빛낸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광주시체육회 선수단은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여일부 표면 200m에서 양현지가 1분32초7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표면 1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일부 표면 400m에서는 황윤형이 3분22초7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표면 800m에선 동메달을 땀었다.

페퍼스, U20 여자배구 대표팀과 합동 훈련 성료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치른 한국 U20 여자배구 대표팀과의 합동 훈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페퍼저축은행 제공>

여자배구계 선배들이 한 코트에서 만나 구슬땀을 흘렸다.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한국 U20 여자배구 대표팀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훈련은 U20 대표팀의 실전 감각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장윤희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7월 1일 중국 장먼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아시아청소년 여자U20배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다.

페퍼스는 안방으로 U20 대표팀을 초청해 합동 훈련을 하고 세 차례 연습경기도 소화했다.

장윤희 감독은 "프로팀과의 공동 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흔쾌히 배려해준 페퍼스와 장소연 감독에게 감사하다"며 "유소년 선수들이 실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페퍼스 역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대회에서 U20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U20 대표팀은 지난 2023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FIVB) U19 세계유소년 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